

“전통문화 체험과 자기 수행 기회 제공”

조계종, 6월 1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템플스테이 대중화, 21세기 불교 인재 양성의 요람인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원장 종훈, 이하 전통불교문화원)이 공식 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11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원 스님, 중앙총회회장 보선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사 6명, 이원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원준 충남도지사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개원사에서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터를 파고, 기둥

을 세우며, 들보를 올려 이처럼 훌륭한 문화원을 세우게 됐다”라며 “전통불교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체험과 자기 수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회의장스님은 축사에서 “(전통불교문화원) 오늘날 인류에게 시급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인성이 풍부한 연수시설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전파하고 대중화해 세계에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큰 몫이 사부대중에게 맡겨졌다.”

전통불교문화원은 2004년 8월 건립부지 확보, 2007년 7월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44억원 예산을 투입

해 연건평 3000평 부지에 교육행정동과 숙박수행동의 2개 동을 갖췄다.

교육행정동은 교육과 연수 및 회의, 불교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한 시설로 다목적용, 대강당, 강의실, 토론실, 운영본부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실 이미지로 지어진 전망은 흠뻑으로 마감돼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에 선 체험을 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숙박수행동은 300여 명 수용규모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숙박과 공양 등 후생 및 편의시설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통불교문화원을 템플스테이 관련 각종 연수



6월 1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식 커팅 모습.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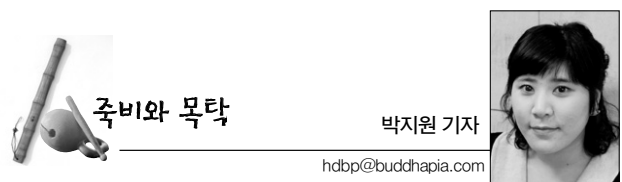
및 인력 양성 △중앙총무기구의 연수교육 실시 △종단 내 각종 연수교육의 적극 유치 △자체 수행,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에 앞서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은 간담회를 열고 “7월 2

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할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죽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op@buddhapia.com

수월관음도의 ‘귀환’ 이 남긴 것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유래 없는 특별한 전시를 열었다. 고려 불화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일본 가가미신사가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도’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전시된 후 다시 현재관을 건너갔다.

가가미신사 ‘고려 수월관음도’는 아름다운 그림 만점이나 크기에 있어서도 대단했다. 보통의 불화가 가로·세로 100~200cm인데 비해 화폭의 크기만 가로 430cm, 세로 254cm에 이르는 대작이다.

총렬왕과 아들 종선왕을 대대로 모신 후궁이자 그들의 사후 고려 권력자가 된 숙비(淑妃)가 8명의 궁정화가를 동원해 1310년에 완성했다. 당대 최고 권력과 최고 예술가의 합작품인 것이다. 그 후 1391년 일본 가가미신사에 진상됐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왜구의 주요 본거지였던 규슈 서해안의 가가미신사에 1391년 약탈해 간 뒤 봉안했다는 후대의 기록이 있으니, 그 진실은 화폭 속 관음보살 남만이 아실 것이다. 어찌됐든 이곳에서도 연중 40일도 채 공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문화재를, 일본 측과의 어려운 교섭 끝에 잠시 임대해 온 것이다. 호암 미술관의 임대 전시를 제외한다면 실로 600년 만의 ‘귀환’이다. 그렇다면 ‘고려 수월관음도’

처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총 7만6143점이다. 그중 일본에만 3만4369점의 문화재가 있고, 미국에 1만8635점, 영국 6610점, 독일 5221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유물이 해외로 넘어간 경위는 경제개방을 통한 낙찰, 기증, 거래 등 다양하다. 그중 술한 침략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해외에 약탈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대어를 준비 중이던 일본 시가현립 박물관에 국내의 모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가 대뜸 ‘불화를 가져간 왜구의 후손을 취재하려 하니 알선해 달라’고 한 것. 일제강점기에 강탈된 문화재는 응당 돌려받아야 옳다. 하지만 약탈의 물증이 불명확하고 그 유출의 경위조차 모르면서, 단지 애국심만 앞세운다면 우리의 귀한 성보(聖寶)들은 더 깊이 숨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9월 국립중앙박물관 ‘100주년 특별展’에 일본에 있는 안건의 ‘몽유도원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 많은 해외 유출 문화재는 누가 찾아와야 할까. 그 해답은 수월관음도, 안견도 아닌 우리의 몫일 것이다.

조계종 자비나눔 성금 총 8억9400만원

난치병 환자·이주노동자 의료비·저소득 가정 등 지원

조계종은 6월 8일 자비나눔에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집행내역안을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성금은 약 정포함 총 8억9400만원(6.10 기준)으로 집행안은 △난치병 환자 및 이주노동자 의료비 지원-1억2000만원 △저소득·실직 가정 생계지원-1억원 △이주노동자 복지 지원-1억원 △실직자 무료 템플스테이 등이 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사화단

체 공모사업 지원, 재난 구호 긴급자금, 자비나눔 목적자금 적립 등에 사용된다.

이미 지난 5월 7200만 원을 ‘사후승인’ 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17일 아름다운동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비나눔 기금 집행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은 10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노덕현 기자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오른쪽)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지관 스님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능행 스님·임영애·안준영 교수

24회 불이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7월 6일



능행 스님, 임영애 교수, 안준영 교수.

여성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24회 불이상 수상자에 능행 스님(실천분야)과 임영애 경주대 교수와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겸임교수(연구분야)를 선정해 6월 8일 발표했다.

능행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분야에 선구적인 인물이다. 2000년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센터 ‘정토마을’을 개원해 운영 중인 스님은 불교 호스피스 활동의 전기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현재 능행 스님은 서민들을 위한 승가복지법인인 ‘자재병원’을 건립 중이다.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소장불교학자인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저서 18권과 5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인도 서역 중국 한국의 불상을 망라한 중견학자다. 특히 실크로드

와 간다라 지역에 관한 임 교수의 연구는 학계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겸임교수는 서양에서 한국선학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선학전공학자다. 선병(禪病)에 관한 박사학위논문과 선학관련 여러 저술들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견인해왔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 중인 한국불교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선문연승> 등 한국 선서를 영역하고 있다.

시상식은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상은 재가불교, 여성 불교의 위상 등을 세우고자 1974년 설립된 불이회가 1985년부터 제정·시행해 왔다. 조동섭 기자

국립공원 제도 개선 템플스테이 잇따라

조계종단 최대 현안인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석)은 국회의원 보좌관, 방송 프로듀서 등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를 6월 5-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했다.

예를, 참선 등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국립공원 제도 및 자연공원법

관련 간담회가 더해진 행사에는 한국PD연합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5월 27-28일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회가, 30-31일에는 강화 전등사에서 국회 보좌관 불자모임인 ‘법우회(회장 장재혁)’ 회원들이 국립공원 제도개선 홍보를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새 총무원장은 지혜와 리더십 갖춰야”

불교지도자넷 ‘총무원장 연중캠페인’ 서 주장

10월 22일 조계종 선거에서 선출될 제33대 총무원장은 현안해결 지혜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 운영자 범응)은 조계종 교구본사 등에 6월 10일 배포한 ‘총무원장 연중 캠페인’ 제3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캠페인 자료집에서 불교지도자넷

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분수령”이라며 “불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차기 총무원장은 건강과 청정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지도자넷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들에게 △재정투명화의 천명과 실현 △종단 정체성 확립과 정화이념 구현 △문중과 파벌의 대화화 천명 △종단혁신위원회의 현

실적 운영과 실현 △평행인사의 천명 등 5개항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범응 스님은 “종단은 물론 교계 각 단계의 강도 높은 감시와 청문으로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금년 선거를 청정공명하게 이끈다면 이것이 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최고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7)252-2459 조동섭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6. 27(토) 오후 1시부터 ~ 6. 28(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련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로 저희가 격으로 보내드리고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연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렴,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지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을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식 51160-150)